

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3. 7. 21.(금)

서울~양평 고속도로, 장관이 답해드립니다!

- 7월 21일부터 누리집 온통광장에서 ‘서울~양평 고속도로’ 관련 질의 접수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서울~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국민 질의를 7월 21일부터 누리집 온통광장과 SNS 등 온라인으로 접수, 추후 장관이 직접 응답하는 소통을 진행한다.
 - 국토부는 지난 3일 서울~양평고속도로 노선 관련 언론 보도 이후 일부 언론의 오보와 제기되는 주장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, 계속해서 확산되는 가짜뉴스를 차단할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.
 - 이에, 국토부는 ‘서울~양평 고속도로’ 질의를 온라인으로 접수받은 후 원희룡 장관이 직접 응답하는 ‘온라인 소통’을 시행한다.
 - 고속도로 관련 질의를 국토교통부 누리집 양방향 소통 플랫폼인 ‘온통광장’(<https://www.molit.go.kr/syhighway/main.jsp>)으로 접수받으며, 원희룡 장관은 영상 또는 글을 통해 직접 답변할 계획이다.
- ※ 또한, ‘서울~양평 고속도로’ 논의과정에서 있던 일체의 자료를, 일반 국민들도 확인하실 수 있도록 곧 공개할 예정이다.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소통을 통해 “현재 서울~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무분별한 가짜뉴스에 엄정하게 대응하고, 양평군민을 비롯한 국민의 숙원인 서울~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민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도로국 도로정책과	책임자	과 장	한명희 (044-203-3875)
		담당자	서기관	이종현 (044-203-3904)



참고 1 서울~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민 질의 플랫폼

□ 온통광장 (<https://www.molit.go.kr/syhighway/main.jsp>)

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

서울~양평고속도로

무책임한 괴담으로 국민이 피해를 볼 순 없습니다.
국민들의 질문에 원희룡 장관이 답합니다!

자유롭게 남겨주신 궁금증에 대해 사실과 근거로 알려드리겠습니다.

※ '서울-양평 고속도로' 관련 일체자료 곧 공개 예정입니다.